**연중제21주일(2018년 8월 26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말 한마디로 천냥 빚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쏘아 놓은 화살이다’하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들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또 그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성당에서 새성전 축성기념 행사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 성당은 아주 오랫동안 성전 건립을 위해서 신자들과 신부님이 헌신적인 노력을 했고, 드디어 새로운 성전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건립한 성전에서 신자들에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수녀님 한 분이 강사로 초빙되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녀님은 강의 첫머리에 이렇게 좋은 성당 축성식 기념 강사로 자신을 불러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을 잘 닦아 놓으면 문둥이가 먼저 지나간다더니 제가 그 격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몇몇 사람이 갑자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성당 축성식은 그야말로 썰렁해집니다.

무슨일이 일어난걸까요? 그 성당은 나환자 마을 공소를 가지고 있었고, 그날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그 공소에서 나환자들이 20여명 힘들게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녀님이 문둥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수녀님은 겸손하게 감사의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인데, 그 자리에 진짜로 나환자들이 와 있었던 겁니다.

얼마전 남편을 잃은 한 부인이 동창회에 갔습니다. 혼자 된 이 동창을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동창들이 함께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걱정하면서, 어떻게 여행 경비를 모을까 궁리하고 있는데, 동창회 회장이 오더니 대뜸 한다는 말. “걱정마, 내가 과부 땡빚이라고 내서 여행 경비 마련할 테니까 다 가자!” 그 순간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그 여인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동창회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구도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심코 던진 돌멩이 하나가 개구리 한 마리를 죽게 할 수도 있듯이, 생각없이 일상 안에서 쓰는 말들이 누군가에게 화살촉처럼 박히기도 합니다. 살면서 내가 던진 돌멩이나 내가 쏘아 놓은 화살들이 누구의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가 가끔 반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상처들로 인해서 우리는 왜곡된 진리를 만들게 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양 오해하고 상처받는 거죠. 그 왜곡된 진리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고 삽니다. 예를 들어, 나환자들이 있는 줄 모르고 ‘문둥이’가 어쩌고 저쩌고 말했던 수녀님은 나환자들을 차별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나환자들은 그 수녀님이 자기들을 무시하고 싫어하고 함부러 대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창회의 그 회장은 과부가 된 동창을 놀려주려고 한 말이 아닌데, 농담처럼 한 그 말이 상처가 됩니다. 사실이 아닌데, 거짓된 정보가 사실처럼 왜곡된 거죠. ‘왜곡된 진리’라고 합니다.

제가 미국 성당에서 자주 면담을 하는 어떤 자매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결혼도 안하고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사는 50대 중반의 자매인데, 어려서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고 어머니와 이혼을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은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평생 괴로워하면서 혼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아버지나 어머니나 모두 살다 보니까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지, 자식을 버린적도 없었고, 미워하거나 쫓아 낸 적도 없었습니다. 의사였고 부자였던 아버지는 아직도 이 자매님에게 생활비를 대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아무에게도 버림받은 적이 없었는데도, 이 자매님은 어릴때 아버지가 떠난 그 사실에 상처를 받고, “나는 부모로 부터도, 세상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는 왜곡된 진리를 만들어내서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또, 어떤 자매님은 젊고 이쁜데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의 외모에 자신이 없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가지도 않는 겁니다. 공황장애라고 하죠. 그리고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친구도 없고,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었답니다. 그 자매님과 면담을 여러차례 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어릴때 옆집 아주머니가 이 자매님에게, “어휴 이쁘게도 생겼네. 넌 이 다음에 커서 인물 값 하겠다. 얘. 남자들 많이 울리겠네!”하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외모에 커다란 컴플렉스를 갖게 되었답니다. 실제로는 외모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릴적 그 한마디에 “나는 내 생긴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많이 주겠다”는 왜곡된 진리를 만들어내게 되었고, 그 왜곡된 진리에 평생 괴로워하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신자들과 고백성사나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집에서 아들을 기대했는데, 딸로 태어나니까 어려서 구박을 많이 받고 컸나 봅니다. 그것이 상처가 되서, “나는 이 세상에 불필요한 존재구나” “우리 부모들은 나를 싫어하는 구나” “나는 천덕꾸러기구나”하는 왜곡된 진리가 만들어져서 평생 괴로워하면서 삽니다.

이렇게 실제 사실과는 다르게 만들어낸 왜곡된 진리 때문에 상처받고 괴로워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진짜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사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랑스러운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이 귀한 하느님의 자녀가 제대로 행복하게 기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내 마음 속에 만들어 놓은 왜곡된 진리 때문입니다.

“나는 못 생겼어” “나는 별로야” “나는 세상에서 별 쓸모가 없어”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 “나는 할 줄 아는게 하나도 없어” “내 인생은 별볼일이 없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미워해” 등등 우리는 얼마나 많은 왜곡된 진리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삽니까? 오해로 만들어진 왜곡된 진리가 내 마음을 가득 자리잡고 있어서, 잠도 못자고, 우울증이 시달리고, 화나고 분노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거짓된 정보, 왜곡된 진리에서 참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의미입니다.

참된 진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사랑스런 존재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대접해주고, 서로 아끼고, 용서해주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혹시 내가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그 사람도, 내가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도, 다 알고 보면 하느님의 귀하고 사랑스런 자녀입니다. 그러니 서로 아끼고 잘 보살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변할 수 없는 참된 진리입니다. 왜곡된 진리에서 자유로워지고 참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은 참된 진리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자주 부딪치게 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늘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살아야 합니다. 행복도 나의 선택이고, 왜곡된 진리도, 참된 진리도 내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도 또한 내가 져야 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오랫동안 지면서 살아야 할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제일 후회하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어이구 내가 저 웬수 같은 사람 만나서 여태 이 고생하면서 살지... 그때 내가 그 사람 쫓아 가는 건데...’

복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기 갈길을 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따를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납니다.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 나라에 대한 이 가르침은 온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됩니다. 별 희망도 없이 그저 하루 하루 살아왔던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삶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처럼 가난하고 별 볼일 없는 사람들도 구원될 수 있다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대표적인 기적이야기가 바로 요한 복음 6장의 첫부분에서 들었던 오천 명을 먹인 기적 이야기였습니다. 이 기적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영원한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배를 부르게 해 주었던 그 기적에만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배만 부르면 그걸로 만족했던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배 부른 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굶주림을 채워줄 영혼의 양식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의 양식, 즉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배만 부르게 해줄 빵을 계속 달라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이야기, 영혼의 양식 이야기가 안 통합니다.

배를 부르게 해주니까 열광하고 좋아하다가, 이제 영혼의 양식 이야기를 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배부른 빵만 쫓고, 기적만 쫓는 사람들에게 신앙은 없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네들의 일상의 삶을 쫓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도 물어봅니다. “그럼,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 말고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당시 상황에서 참 대단하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떠날지 말지 선택의 기로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용감하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당시 유다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먹보요, 술보요, 안식일법을 거스린 죄인’이라고 단정합니다. 이것이 당시 예수님에 대한 거짓 정보, 즉 왜곡된 진리였죠. 이런 왜곡된 진리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참된 진리를 따르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 선택으로 초대 사도들의 공동체가 형성되죠.

우리도 늘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귀찮고 피곤한데 미사에 갈까 말까? 성당 모임에 갈까 말까? 오늘 헌금을 10불할까 20불 할까? 아까운데 그냥 5불만 내자. 2차 헌금을 한다는데 얼마낼까? 봉사자가 필요하다는데 할까 말까? 사랑을 실천할까 말까? 신앙 생활을 할까 말까? 하늘 나라에 갈까 말까? 구원 받을까 말까?

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운명은 모두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도 영원한 생명도, 그리고 구원도 다 우리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왜곡된 진리와 참된 진리를 선택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위해서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혜롭고 영원히 가치가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